

SolVin, PVC 14만톤 가동중단!

2006년 1월부터 독일 14만5000톤 대상 ... VCM 10만톤 플랜트도

Solvay와 BASF의 75대25 합작기업인 SolVin은 2006년 1월1일 독일 Ludwigshafen 소재 VCM(Vinyl Chloride Monomer) 10만톤 및 PVC(Polyvinyl Chloride) 14만5000톤 플랜트 가동을 중단할 계획이다.

VCM과 PVC 생산능력은 세계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PVC 재고증가와 수요감소로 가격이 하락해 플랜트 가동을 중단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.

장기적으로 볼 때 유럽의 PVC 수요증가율은 GDP 성장률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.

앞으로 SolVin은 VCM 및 PVC 플랜트 가동중단으로 인해 발생할 생산차질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지역의 플랜트 생산능력을 확대할 방침이다.

SolVin은 독일, 이태리, 스페인 및 베네룩스에서 각각 PVC 플랜트를 가동하고 있고 생산능력은 총 110만톤에 달하며 2002년에는 11억유로(13억달러)의 매출액을 기록했다.

SolVin은 1999년 설립돼 염소 사업을 시작으로 EDC(Ethylene Dichloride) 및 VCM을 거쳐 PVC로 사업을 확장해 유럽 최대의 PVC 체인 생산기업으로 부상했다.

<Chemical Journal 2003/08/13>